

Robert Vannoy , 신명기, 14강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고대 이스라엘 예배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벨하우젠의 견해에 대한 반응

우리 의 논의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예배의 중앙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배가 집중된 장소와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시트에 있는 "B"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가 중앙집중화되었다는 벨하우젠의 관점에 대한 제안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하려는 것은 Halwarda가 Wellhausen의 입장에 반대하여 주장한 방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5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하단에 "신명기의 예배 중앙화"가 있고 네 번째 항목에 Halwarda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을 번역한 네덜란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꽤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내가 말할 내용의 대부분은 그가 그 기사에서 자신의 논문을 전개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Halwarda는 Wellhausen의 이론에 대한 반대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반대는 시스템의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 벨하우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세부사항, 저 세부사항 또는 기타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벨하우젠 시스템에 대한 많은 반대는 그의 시스템의 다양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와르다 가 주장하는 것은 예배의 중앙집중화가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Wellhausen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중앙 집중화 문제가 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 문제입니다.

1. 벨하우젠에 대한 할와르다의 반응: 역사서에는 여러 제단이 있습니다

Halwarda 는 구약을 볼 때 사사기부터 왕국 시대까지의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다양한 제단을 발견한다는 것을 아주 빨리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부터 왕국 시대까지의 다양한 제단은 성막에서의 예배와 별도로 예배를 언급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불법적이거나 불법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물론 그는 불법적이고 모세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배의 예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에서 이러한 드라빔을 소유한 미가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 지파가 와서 이 우상을 가지고 미가의 레위 지파와 함께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 예배 장소와 제단을 세웠습니다. 확실히 그 숭배는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의 요구 사항에 어긋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열왕기를 읽을 때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불평도 있습니다 . 북방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가 북쪽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2. 제단의 다양성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 여로보암의 문제 이제
 할와다가 생각 하는 문제는 북쪽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예배와
 제단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정죄함이 없는 많은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부터
 왕국까지의 기간에는 다수의 제단이 *그 자체로 정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

3. 갈멜 산 위의 엘리야와 제단(왕상 18-19) 할와 다가 제시한 한 가지 예
 는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맞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는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싸움을
 벌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불을 붙였는데, 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알에 대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성전
 제단과는 별개의 제단이었습니다. 그 때는 성전이 건축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또 하나의 제단으로 정죄하기 보다는 주님께서 아합 시대에 북쪽에

있는 그 제단을 승인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Halwarda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한 후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할 때 낙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위해 매우 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만 남았다.'” 그가 불평한 것은 제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희생의 합법성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져온 희생의 합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루살렘 외에 제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벨하우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제단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중심으로 많은 제단이 있지만 다른 제단도 많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 제단에서 하나의 제단으로 발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전혀 낯선 개념인 것

같습니다.

4. 가나안 산당 제단은 금지되었다 물론 산당에도 제단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당 중 일부는 특별히 금지된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산당들 중 일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 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는 점차 이런 종류의 혼합주의적인 예배와 바알 예배와 여호와 예배 사이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고 일컬어지는 남쪽의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허물지 아니한 것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그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통치에 일종의 얼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것을 철거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가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이교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혼합주의적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5. 사무엘과 여러 제단 사무엘서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분명 주님의 선지자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방인 숭배를 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을 때 그의 종인 “저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서 알아보자”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동네에 이르러 묻거든 거기 선견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너희보다 앞서 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두르세요.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네가 마을에 들어가면 그가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라. 그가 제물을 축복해야 하므로 그가 올 때까지 백성은 식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서 이 시간쯤에 그를 찾아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대답하되 나는 선견자니라.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5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산당에서 성읍으로 올라가서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하였다.” 사무엘의 희생이 분명해 보이며, 사울이 라마 에서 이러한 희생의 식사를 했습니다 .

사무엘상 7장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 날 그들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은 젓먹이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느니라.” 그곳은 그가 희생한 또 다른 곳입니다.

11장에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그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왕권을 다시 확인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화목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곳으로 갔으니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책 뒷부분인 16장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절을 읽게 됩니다(이 절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삼상 16:1).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됨을 버렸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우라. 가세요. 나는 너를 베들레헴의 제시에게 보낸다. 나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를 죽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너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야 하겠다 하라.”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토론(삼상 16장)

사무엘상 16:2의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고, 속인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이 거의 벌어지는 상황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보다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해 더 큰 의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는 정의적이고 의미론적인 질문이며 매우 복잡해집니다. 나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구약 역사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홉 번째 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를 제외하고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로 이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긍정적인 의무입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연구해 보면 이런 종류의 텍스트가 그 견해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은 제가 말했듯이 구약 역사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 한국 동료들 중 일부는 한국의 전쟁 상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점령지인 네덜란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유대인을 수용하고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SS가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속입니까? 나는 그들을 속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의 윤리학 책에서 그는 속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숨길 수 있다는 구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숨길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정한

의도와 그곳에 가는 진정한 이유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에 사울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그다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함)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그는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구별이 실제로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뭔가를 말한다) 있잖아요, 호지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면 호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므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질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요점은 베들레헴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막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Samuel의 여러 제단(계속) Wellhausen이 기원전 621년 이전 이 시점에 다양한 제단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이 지역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것에도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상에서 자기 자리에 없었을 때, 사울은 처음에는 그가 부정하다고 가정하여 다윗을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초승달

축제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6절을 읽어 보세요. 사울은 그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 자기 집에 없고 다윗에게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달 같은 날 데이비드의 집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찌하여 식사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형이 나에게 거기로 오라고 했으니 가도록 해주세요.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나로 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상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 물론, 다윗과 요나단은 이전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점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사울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들은 제단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에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1절과 10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네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고 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시라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불안정한 시대: Deut. 12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만 중앙집권화 [다윗/솔로몬 이후]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불안정한 시대, 즉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하 7장 1절과 11절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어 보십시오: “왕이 그 궁궐에 머무르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적에게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10절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다시는 그들을 학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웠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느니라. 나도 네 모든 적들에 대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이 적용되는 안식의 조건이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적에게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느니라” 고 말하는 다윗 시대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신명기 12장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제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7장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혁명을 조직한 후에도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하였나이다. 주의 종이 아람 게셀 에 있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이 서원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면 나는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 그리고 물론 압살롬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제물을 포함하여 서원을 갚기 위해 헤브론으로 갈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에는 제단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동의를 받아 그렇게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앙 제단 외에 여전히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2장 10절에 언급된 안식이 외부 적들로부터의 안식을 언급한다면 신명기 12장은 대부분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의 매우 짧은 기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식’ 이라는 용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언급한 것은 외부 적들에 대한 것이지만 , 신명기 12장의 내부 적들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그 안식은

실제로 정복 직후에 달성되었습니다. 르우빈 지파 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도우려고 건너왔다가 요단강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갔음을 기억하라 .

여호수아 22장 4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저편 땅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정복 직후에 달성되었습니다. 내부의 적들은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패배했습니다 .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신명기 12장의 율법이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에 유효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보다 그곳에서 그것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 적들 중 일부에 대해 승리를 거둔 후 주기적으로 사사기를 통해 그러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사기의 내부 내용이었습니다.

8. 여호수아 21:43 안에 안식하십시오 여호수아 21:43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느니라. 그들의 적 중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느니라 모두가 성취했습니다.” 꽤

절대적인 용어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사기의 첫 번째 장을 살펴보면 아직 자신들의 영토 중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많은 부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것은 저항이 실제로 무너졌고 사람들이 할당된 영토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정복은 실제로 성취된 일이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안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9. 출애굽기 20:24-26 자르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또 다른 점은 출애굽기 20:24-26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제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 제물, 양과 염소와 소를 바쳐라.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에서는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연장으로 하면 더럽히느니라 그리고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라. 네 벌거벗은 것이 그 위에서 드러날까 두렵다.”

이제 출애굽기 20:24-26에 나오는 제단 쌓기에 관한 규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 자르지 않은 돌과 흙의 제단을 말하는가? 그것은 광야 기간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까?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에 관한 규례를 보았으니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층계도 만들지 말고 그런 것. 땅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위치할 장소를 언급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NIV 번역).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신의 승인을 받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장소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제단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단 하나의 제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은 분명히 이 법령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제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Wellhausen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24-26과 신명기 12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Wellhausen이 한 일은 두 법칙 사이에 오랜 발전 기간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24-26은 여러 제단이 있는 초기 시대를 나타내며, 중앙집권화를 통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동하는 오랜 기간 후인 요시야 시대를 나타냅니다.

10. 신명기 읽기. 12 올바르게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신명기 12장을 올바르게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이 하나의 중앙 제단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하나의 제단만으로도 합법적인 예배 장소는 단 하나뿐일까요? 신명기 12장은 실제로 그러한 종류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물론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합법적인 제단을 필요로 한다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12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할와 르다(Halwarda)가 신명기 12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 12장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명기 12장 14절은 방금 언급된 핵심 구절입니다. “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진술을 위해 13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너는 삼가서 보는 모든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라 ” 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와는 반대로 너희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너희의 제물을 가져오라. 첫인상은 희생을 치르기 위한 장소가 단 한 곳,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Halwarda는 첫인상에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 지파 중 하나” 라는 표현은 반드시 한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의 “any”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 지파 중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제 그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삽화를 사용합니다. 그는 신명기 18장 6절에 “레위인이 네 성문 중 한 곳(히브리어: *에하드*) 에서 왔으면 ” 이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이디어는 레위인이 “당신의 성읍 중 어느 곳에서나” 왔는지에 관한 것이며 NASV는 그것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네 성읍 중 하나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먼저 레위인이 한 성읍에서만 나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 중 어느 곳에서나 왔다는 생각입니다.

신명기 23:17에 종에 대하여는 “그는 네 성읍 어느 곳에서든지 너와 함께 거주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 *ehad* ’ 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 그러므로 12장 14절에는 “어떤” 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하나”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정관사와 함께 단수형인 “in the place” 입니다. 그것은 단수형이고 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둘 이상을 의미한다면 복수형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Halwarda의 대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 그는 민수기 16장 7절에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될 것이요.” “그 사람” 단수, 정관사,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리라.” 민수기 16장의 맥락은 고라, 다단 , 아비람이 모세의 지도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 사람” 은 단수형이지만 문제는 제사장이나 지도자의 직분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250명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두 개의 복수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250명에게 있습니까? 대답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세나 아론,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사람들입니다. 250 아니면 둘이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기사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닌 분배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입니다. “영혼”은 단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죽을 영혼이 단 한 명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배적이다. 죄를 짓는 영혼은 누구나 죽을 것입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미 신명기 18장 6절을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레위인이 네 성읍 중 어느 곳에서 왔으면 그 레위인이 마땅하리로다.” 이는 레위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23장 17절에 “그 종은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가리라” 고 했습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이는 기사의 배포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죽게 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특정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자격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명기 12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 중 택하신 곳에서는.” “그 장소”는 반드시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파 중 어느 곳에서도 선택하실 것이라는 임의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가능한 유효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Halwarda가 그 텍스트를 읽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이러한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지만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레인(Jeff Lane)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